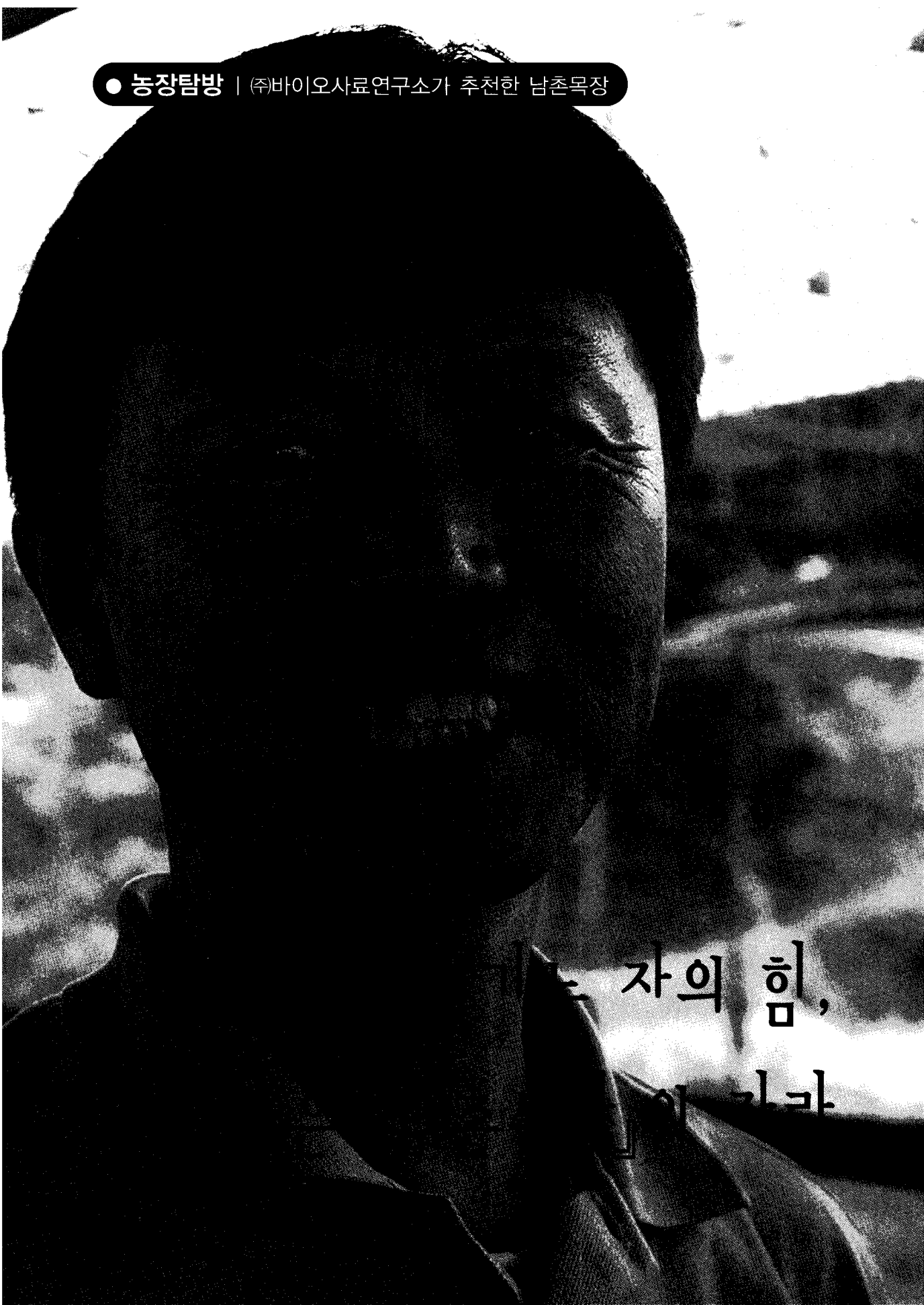


● 농장탐방 | (주)바이오사료연구소가 추천한 남촌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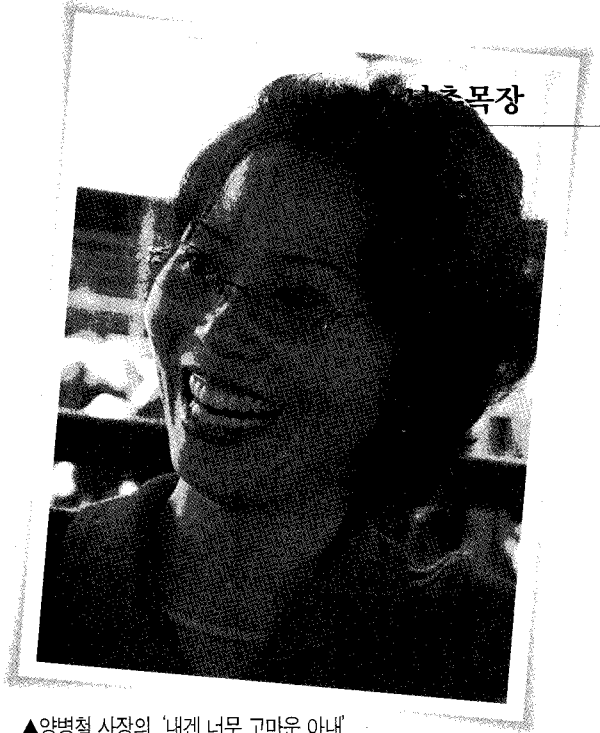


자 의 힘,
이 리카

『논어』 제6편 옹야(雍也)의 한 구절에 오랫동안 호흠이 멈춘 적이 있었다. “지지사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그 말이 주는 여운이 한동안 내 인생의 무슨 좌우명처럼 따라 다녔던 것이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그 깊은 뜻이 마음에 들었던 까닭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진정으로 내 일을 즐기는 그 높은 경지에 이르지 못해 날마다 아등바등, 허우적거리고 산다. 그러면서 그 좌우명처럼 떠받들던 구절도 어느 샌가 나의 책상머리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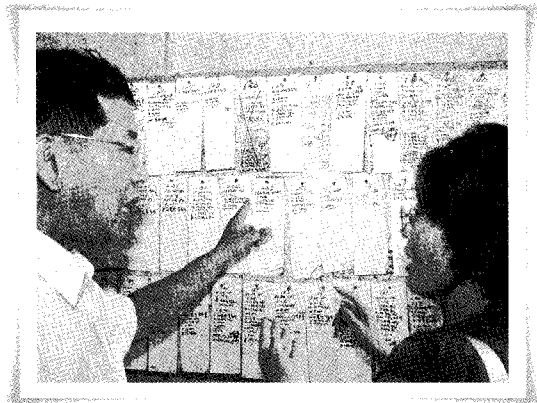
9월, 충북 보은의 『남촌목장』을 다녀오던 길에서 나는 문득 잃어버린 나의 좌우명을 머릿속에서 다시 들추어 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일이 즐거운 한 부부를 몸으로 만났기 때문이다.

양병철(47세)사장과 그의 아내는 모두 120두의 젓소를 키우고 있다. 착유우가 60두이고, 건유가 16두, 나머지는 모두 육성우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쿼터량은 1580l, 일일 평균 유량은 2톤에 이른다. 평균 유지방은 4.1~4.0%이고, 체세포수는 12만~14만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우유는 모두 진흥회로 납유한다. 부지런히 잘 키운 젓소들 덕분에 최근엔 지금의 낮은 우사를 대신할 새로운 목장 작업이 한창이다. 그 때문에 사실 근래에 젓소들에게 조금 소홀했던 것도 양병철 사장은 솔직하게 고백한다. 그래도 남촌목장은 이미 젓소 잘 키우기로 인근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있다. 심지어는 남촌목장에서



▲양병철 사장의 '내겐 너무 고마운 아내'

빼는 소까지 이웃에서는 사가기도 한다. 그러고도 “다음에도 또 빼는 소 있으면 우리 집에 팔어~!” 하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 그냥 묵묵히 기본만 충실히 했을 따름인데, 종축개량협회에서 나온 점정사업 담당자들은 남촌목장의 소를 보면 꼭 말한다. “아이구, 개량 참 잘해놓으셨네네요!”라고. 보통이 평균 점수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니 품평회에 출품해보라는 권유도 자주 들었다. 무엇일까? 그의 손엔 남다른 젓소 사양 노하우가 있는 것일까?



▲손으로 직접 작성한 개체별 정보 현황판을 보며 쥘바이오 사료연구소 김광수 사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

배합비를 조정해 먹여보니, 성적변화가 눈에 보이고 재미도 있었다.

“근데 그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지겹더라구요. 일도 많고. 욕심내서 많이 먹여 무리하게 짜면 금방 간이 상하고, 그렇게 간이 상하는 소들은 한창 짜야 될 때 나가기 시작하는데 아까웠습니다. 한 3년 전에 큰 공부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 군에서 주는 최고우 상까지 받은 소가 있었는데, 그 최고우가 젖을 많이 짜내느라 무리를 했는지 간이 안 좋아지더니, 결국엔 빨리 빼야만 했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성적에 욕심내는 사람들 보면 바보라고 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굳어진 데는 우유과동도 한 몫했죠. 하지만 (주)바이오사료연구소를 만나면서 사료는 사료회사에 맡기고, 수의는 수의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농장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결 수월하게 목장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교훈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는 양병철 사장은 여간해서는 소를 안 빼는 목장주로 유명하다. 경제동물이라 어쩔 수없이 강제 도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소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정성과 애착은 그래서 남촌목장에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바로 목장 한 켠에 붙어 있는 개체별 정보현황이다. 어떤 질병을 언제 앓았는지, 언제 번식을 했고, 수정을 했는지 등의 개체에 대한 정보가 집약되는 곳이다.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의 젖소를 아끼고, 무엇보다 낙농일을 천직으로 알고, 그 일을 즐기는 양병철



▲ 뼈아픈 경험을 들려주는 양병철 사장

사장. 그에겐 어떤 꿈이 있을까?

“우선 지금 짓고 있는 새 우사가 잘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제 일을 이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시골에 산다는 게 교욱문제를 빼고는 얼마나 축복이예요? 특히 여기는 근처에 청남대가 있을 만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에요. 목장 터로는 제격이죠. 이 일을 자식들 중 누군가가 맡아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지게 된 꿈은 그런 겁니다. 아주 깨끗하고, 내실있는 목장을 만들어, 비육을 겸해서 관광농장을 만드는 겁니다. 멋진 자연과 함께하는 깨끗한 목장을 도시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역시나 남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는 꿈을 지니고 사는 양병철 사장. 자신의 일이 즐거우니, 타인의 즐거움까지 생각할 수 있으리라. 그의 즐거움이 계속해서 쭉~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⑤